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종윤
Lee, Jong Yun, Ph. D., D.D., D. D.

박노철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호산나의 함성소리” (Joy to Know the Creator)

■ 누가복음 19:28-48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실 때에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고,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셨고, 만민이 백성들이 큰 함성과 함께 주님을 환영하지 않는다면 돌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왜 이렇게 온 백성의 호산나 함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임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1.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바로 그때가 드디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요7:30).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시면서 종종 “이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도, 조심스럽게 숨어서 사역을 하신 이유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도 있었으나 못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를 맞추시기 위해서 그들로 예수님께 손을 못 대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때”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벽하게 아름다운 자연세계를 누리며, 그 창조주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살았던 인간의 행복이 깨지는 그 비극적인 사건, 즉 타락의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합니다(창3:15).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시는데 그 순간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때”에 관한 성경 예언은 구약 내내 계속됩니다. 이사가 선지자는 “그때”를 인류가 사망의 어둠 가운데서 거대한 빛을 보게 되는 때로 예언했습니다(사9:6). 이사야는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너무도 생생하게 예언했습니다(사53:5-6). 즉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때”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바로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때”에 관해서 모세 오경에서도, 시편에서도, 모든 지혜서와 선지서, 다니엘서에서도 끊임없이 증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 순간, 그 순간이야말로 모든 성경의 정점이고, 모든 인류역사의 정점이라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마21:4~5).

우리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동시에 겸손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위엄을 느낄 때마다 아니요, 사람들이 화려하게 느낄 금수레를 타시지도 않았습시다. 키 작은 나귀 새끼,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셨습시다. 그 누구라도 와서 만지고, 함께 웃고, 함께 손잡을 수 있는 겸손하신 왕,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두 번째 이유는, 그 나귀 새끼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나귀는 무거운 멍애와 짐을 지는 짐승입니다. 이제 예수님 자신이 나귀처럼 무거운 세상이 죄짐을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처럼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절고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상처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한 구간을 보내십니다. 그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자유를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하늘의 이슬과 땅의 아름다운 복들을 넘쳐도록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증거하던 바로 그때,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된 그때, 하늘의 천군천사들도 흠모하던 그때, 우리의 죄악이 씻겨지며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선포되던 그때,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난을 모른다고 하시겠습니까? 온 백성들은 호산나 찬송하는데, 그 찬송을 들으시는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케 하시고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맺는 말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가지며, 고난주간 그날, 그날에 있었던 주님의 행적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 돌들도 잠잠할 수 없었던 바로 “그때”를 맞이한 구원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에까지 함께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나주 박노철 목사 설교요약)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 (매일)	본당 Ⅱ층
주 일 예 배	Ⅰ부	가 족 예 배	오전 9시	본 당 Ⅱ,Ⅲ,Ⅳ층
		교회학교 모임	오전 10시	
	Ⅱ부	일 반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Ⅲ부	경배와찬양	오후 1시 30분	
		청 년 예 배	오후 2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티 홀
	찬 양 예 배		오후 5시	본 당
어린이 찬양예배		오후 5시	101호	
수 요 예 배	Ⅰ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Ⅱ 부 예 배		오후 7시	Ⅱ,Ⅲ,Ⅳ층
	어린이 수요일예배		오후 7시	603호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20분	본 당 Ⅱ층

교회학교 안내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2개월)	1부 오전 9시	영아부 403호	디아스포라 부	오후 1시	903 호
유아부(25개월-5세)	2부 오전 11시20분	유아부 706호	Discipleship Program	오후 12시40분	101 호
유치부(6세-7세)	3부 오후 2시	유치부 702호	사 랑 부	오전 10시30분	102 호
유 년 부	오전 10시	701 호	에바다 부	예 배	오전 11시20분 603 호
초 등 부	오전 10시	101 호		성경공부	오후 2시-3시 603 호
중 등 부	오전 10시	501 호	새 가 족 부	1부	오전 10시
고 등 부	오전 10시	601 호		2부	오후 12시40분 602 호
대 학 부	오후 3시20분	701 호		3부	오후 3시20분
청년 2부	오후 3시20분	601 호		학습준비반	오전 10시 / 오후12시40분 602 호
청년 1부	오후 3시20분	603 호		세례준비반	오전 10시 / 오후12시40분 607 호
대학부 토요집회	오후 3시30분	501 호	장 년 부	오전 10시	본 당
청년 2부 토요집회	오전 8시	606 호	소 망 부	오전 10시	603 호
청년 1부 토요집회	오전 11시	603 호	소요리문답부	오후 12시40분	601 호
신혼가정부	오후 3시20분	802 호	신앙강좌 1,2부	오후 12시40분	901 / 701호

우리의 비전 (vision)

-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부 목 사 한상은 서명철 정수길 장석남 황광 유문건 박광일 박진아 **영어목회담당목사** Steven Martinolich
찬양담당목사 오세광 **전도담당전도사** 배경애 **교육 목사** 임규현 김안성 이종진 노정호 **교육전도사** 이신우 바다룡 최인애 허승일
협동 목사 김영한 김은수 김철홍
선 교 사 강아름·주하나, 이사라, 권요셉·조에스타, 김도세·이한나(동아시아), 전광해(서아시아), 이은준·강해정, 양재성·이현주(키자흐스탄)
 스프로토바모어, 조남해, 박진영·김미성(방글라데시), 이재울·박병진, 전호진(캄보디아),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정성진·홍성임
 (팔라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종길·홍미영(말레이시아), 손신일·민태라(체코),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해(말라위),
 김영호·서함정(러시아), 김인서·한혜옥(아르헨티나), 홍남기·김인규(우크라이나), 허창범·한미순(일본), 김평강·최사라(동남아시아),
 김태식, 윤원모, 추수호,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김종일·백순미(티카노동자), 이선희(병원선교)
 Thaug Neigh Mang·Cin Swan Mung·Ko Tin·Kha Ma·May Kya(미얀마)

■ 부활의 아침에.. ■

그 날도 매일처럼 새벽이 찾아 왔습니다. 지구는 그대로 돌고 있었고, 태양은 동쪽에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깊은 잠에 여전히 빠져 있었고,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똑같은 자연세계의 법칙에서 예외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 눈과 귀와 생각에는 이 사건이 기이한 사건이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도 당연한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은 부활의 사건을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행. 2:24)라고 간단하게 언급할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는데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필연적인 사건이었고, 자연세계에는 불가능한 부활의 사건이 자연세계를 초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는 당연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사건은 증거가 있어서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를 믿으며, 성령님의 증거하심을 받아들이는 자만 믿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설명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오늘도 자연세계는 어느 날처럼 똑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마음에는 자연세계를 초월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하는 소망의 기쁨에 전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연세계에 울려 퍼지는 초자연적인 진리가 우리 마음에 넘치는 환희로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2년 부활주일에 박노철 목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Time	인 도 Presider	기 도 Prayer
I	오전 9시	한상은 목사	한상은 목사
II	오전 11시 20분	황 광 목사	신용식 장로
III	오후 2시	정수길 목사	윤봉준 장로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벤전 1:3 ...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5(3) ...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2,3부... 다 합 께
	134(부활절2)
* 송 영 Doxology	1(1) ... 다 합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165(155)...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요20:19-29...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헌금, 부활절감사헌금, 금식헌금 Offering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앙 Anthem	찬 앙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설 교 Sermon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 박노철 목사
	(My Lord, My God)
성찬식 Holy Communion	집 례 자
* 찬 송 Hymn	171 ...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부활절 감사 찬양예배-

오후 5시	인도, 설교	박노철 목사
목 도	다 합 께	
성 시	고전 15:20	인 도 자
찬 송	161(159)	다 합 께
기 도	신용식 장로	
찬 송	162(151)	다 합 께
성 경	마 28:1-10	인 도 자
찬 양	찬 앙 대	
설 교	"두려울 정도의 큰 기쁨" ... 설 교 자	
부활절감사찬양	할렐루야찬양대	
* 찬 송	160(150)	다 합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합 께	

수 요 예 배

I부 오전 11시	인도·설교	박노철 목사
II부 오후 7시		
기 도	I부: 이영희5 권사, II부: 오종래 권사	
성 경	마 6:9	인 도 자
찬 앙	찬 앙 대	
설 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설 교 자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30분, 본당	피아니스트: 이경화·홍혜란·김양언
설 교	박노철, 정수길 목사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20분	본당 2층
설 교	원주희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예 배	찬양대	연 주 곡 명	작(편)곡자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I부	가브리엘	죽임당하신 어린 양	G. F. Handel	백경화	차주연	조현정	윤주일
II부	할렐루야	주 예수 사셨다	Klaus Heizmann	고성진	김현정11	김양언	박광서
III부	임마누엘	부활 찬송	Heather Sorenson	류종기	김윤지2	양경실	윤종현1
찬양예배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Francis E. Aulbach	고성진	김현정11	김양언	박광서
영어예배	예루살렘	<부활절>					
수요 I부	호 산 나	하나님께 영광	Dale W. Baker	서희숙	김윤지2	홍혜란	
수요 II부	시 온	평안누리라	C. Courtney	최유현	김진형	박승기	

<헌금송>

I부	초 등 부	주님을 찬양	폴티	유수진 양혜선	홍혜란	
II부	그레이트샌드	싸움은 모두 끝나고	Kevin McChesney	송재월		
III부	아멘관현악단	살아계신 주	David S. Winkler	임범창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김순중	13-19	사라	최향봉/백경숙	박연희	16-7	보보	본인	최재근	9교구	대학부	최락팀/남태숙
홍경숙	14교구	리브가	인내팀	김성민	5교구	청년1부	이상애	서창민	2교구	고등부	인내팀
박해옥	6-7	마리아	수요노방	권윤환	9교구	청년2부	배연철	최자성	13-19	중등부	최향봉/백경숙
안태길	15교구	마리아	본인	이주혁	7교구	대학부	임범창	최선희	교육1국	초등부	본인
전숙진	13-17	보보	자비팀/이영임	최만규	13-19	대학부	최향봉/백경숙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 앞면에서 계속

8. 기도실 이용안내 / 기도와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교회는 교회당 3층에 기도실을 설치하여 성도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 장소: 302-306호 · 이용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단, 기도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하라되지 않습니다.
9.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병무, 교육,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2-308호) * 전화 예약 010-5779-1329
10. 의료 상담 / 최용준(한방)
주일 오후 1시 902호에서 의료 상담 및 진료를 합니다. * 전화 예약 : 011-3688-9123

☞ 결 혼

1. 신랑 김국진 군(2교구 김영호 집사 박성금 권사 장남)과 신부 박정현 양(청년부, 박영배 성도 장덕선 집사 장녀)
/ 14(일) 오후1시 서울교회

☞ 장례

1. 故 정홍도 집사(3교구 김명애 집사 부군) / 4일(수) 별세, 6일(금) 천국환송예배
2. 故 정석진 성도(1교구 정현구 집사 부친 최복희 집사 사부) / 7일(토) 별세, 9일(일) 천국환송예배

🌿 십자가의 진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으신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다. 절망과 원망의 탄식시를 크게 외쳐야 할 심판의 순간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되는 시간으로 볼 수 있었던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진리를 역설적으로 설명하신 것이다.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떨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며 우리가 실패하여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곧 실패나 파멸이 아닌 전진과 성취의 시간임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죽음인 동시에 생명이고, 죄인 동시에 의가 되며 저주인 동시에 축복이고 상실인 동시에 구원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이며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지옥의 형벌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종운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쓰시다.
유 지	교회에서 음식물 섭취는 만나 홀(801호)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성 수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